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호르무즈 불확실성 재부각..미국증시 하락

- 건강후약 미국증시..주요지수 일제히 하락
-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감 꺾이며 유가 반등..국채금리 상승
- FT “워시 의장, 9월 금리 인상 준비 됐을 것”

Summary

미국증시 약세 전환

현지시각 8월 6일 목요일 미국증시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경계감이 확산, 유가와 금리가 상승한데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상황을 지켜보며 9월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보도까지 전해져 건강 후약의 흐름으로 약세 마감.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85% 하락해 53,885.10에 거래를 마쳤고 S&P500 지수는 0.18% 하락한 7,709.96에 거래를 마칩. 나스닥 지수는 0.06% 하락한 26,348.35에 거래를 마감했고 나스닥 100도 0.39% 하락. 러셀2000 지수 역시 0.58% 하락 마감. 변동성 지수 VIX는 4.17% 하락.

(다우 -0.85%/ S&P500 -0.18%/ 나스닥 -0.06%/ 러셀2000 -0.58%)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가능성 다시 안갯속

이란이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관련한 합의가 공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이날 이란에서 나온 소식으로 흔들림. 이란 반관영 매체 파르스 통신은 이란 의회가 이란이 적대국으로 규정한 미국과 이란 등의 국가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 제한 조치를 위반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화물 가치의 최대 2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짐. 물론 해당 법안은 아직 심의 단계이며 최종 확정과 시행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다만 조건 없는 완전 재개방을 기대했던 시장은 예상과 다른 방향성에 경계감을 높임. 국제유가가 반등했고 국채금리도 이에 동반 상승. 한편 파르스 통신은 이날 정규장 마감 이후 이란 해군이 호르무즈 입구에서 적대적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히는 등 건힐 것으로 기대했던 호르무즈 해협 내 안개가 더 짙어지는 양상.

FT “워시 의장, 9월 금리 인상 준비 됐을 것”

이날 국채 금리는 지정학적 이슈 이외에도 상승할 요인이 다수였음. 먼저 파이낸셜 타임스가 초반 방향성 설정에 영향을 미쳤는데, 신문은 이른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의중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향후 수 주간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뜨겁게 나오고 시장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를 높일 경우 케빈 워시 의장은 9월 금리 인상에 대한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

고 보도. 연준 의장의 의중이 본인의 입이 아닌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 한편 워시 의장과 관련해서는 그가 시장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줄이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는 수차례 비공개 통화를 해왔던 사실이 알려져 연준 독립성에 대한 경계심이 재차 고조.

알파벳, 또 대규모 회사채 발행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또 다시 대규모 회사채 발행에 나선 것도 금리 상승에 일조.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은 알파벳이 최대 250억 달러 규모의 달러 표시 회사채 발행에 나섰다고 보도. 알파벳이 이번에 발행하는 채권은 만기 2~40년으로 구성된 10개 트랜치로 구분되며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적지 않아 이번 채권 발행에는 발행량 4배가 넘는 1,150억 달러 규모의 주문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짐. 알파벳은 AI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자본 지출을 지속 늘리고 있으며 올해만 연간 자본지출 전망을 두 차례 높여 총 2,050억 달러를 예정하고 있음. 다만 전분기 실적 발표에서 잉여현금흐름은 IPO 이후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선 상황으로 회사채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빈번해질 것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음. 알파벳은 올해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시장에서 연이어 채권을 발행, 500억 달러 이상을 조달했으며 지난 6월에는 85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유상증자를 단행하기도 했음. 국채 금리 상승과 함께 하이퍼스케일러의 채권 시장에서의 외부 자금 조달 빈도수 증가, 과정에서 자금 조달 비용 상승과 그로 인한 자본 지출 축소 우려라는 고리가 향후 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여지는 충분히 열려 있는 만큼 관련 이슈에 주목할 필요.

2분기 노동생산성 '기대 이상'

고용보고서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날 미국에서는 주간 지표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와 2분기 노동생산성 지표가 공개됨.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만 9,000건을 기록해 예상치를 하회, 여전히 해고 압력이 제한적임을 반영. 2분기 노동생산성은 전분기 대비 연율 환산 기준 1.4% 상승해 예상치 0.6% 상승을 크게 웃돌았으며 2분기 단위 노동 비용은 계절 조정 기준 연율 환산 1.3% 상승, 시장 전망치 2.1%를 하회함. 이는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는 가운데 노동 비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상대적으로도 절대적으로도 완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힘. 한편 노동소득분배율은 52.9%로 집계돼 지난 1974년 해당 통계 작성 이후 최저를 기록. 이는 경제 성장 대비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몫의 비율은 최저를 기록했다는 것으로 AI 등 기술 발달에 따른 생산성 향상의 과실이 자본가와 주주에게 집중적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임.

특징종목

에너지(+1.59%), 헬스케어(+0.14%) 정보기술(+0.09%) 섹터를 제외한 S&P500 업종 내 모든 섹터가 고르게 하락. 산업재(-0.83%)와 부동산(-0.83%) 섹터가 같은 폭 하락했고 소재(-0.79%), 통신서비스(-0.73%) 등도 대체로 낙폭이 비스.

대형 기술주, 개별 이슈 따라 등락

테슬라(-0.63%)는 대규모 반도체 제조 시설인 테라팸을 텍사스주 그라임스 카운티에 건설할 계획임을 공식화함. 초기 투자액은 168억 달러로 설계부터 제조까지 모든 주요 칩 생산 단계를 한 곳에서 통합하는 수직 통합형 ‘칩 시티’를 만든다는 계획. 목표는 연간 1테라와트 이상의 AI 컴퓨팅 용량을 확보해 테슬라, 오피머스, 스페이스X와 xAI가 구상 중인 우주 기반 AI 데이터센터와 태양광 위성에 필요한 칩을 공급하는 것이며 자체 칩 설계와 제조를 대규모 팹을 통해 현실화 해 공급량과 수요 차이 격차를 해소한다는 계획. 테슬라의 대형 팹 건설 추진은 ASML(+1.56%),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1.26%), 램 리서치(-0.54%), 그리고 KLA(+0.22%) 등의 장비주를 중심으로 기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 다만 이날은 테슬라를 포함해 관련주 모두 약세.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인도 내 최대 규모 데이터센터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힌 마이크로소프트(+2.55%)가 장 중 500달러대 회복 시도를 보임.

구글 알파벳(-1.29%)은 전일 데미스 하사비스가 딥 마인드 수장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잇따른 AI 관련 핵심 인력 이탈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며 하락. 알파벳과 관련해서는 이날 최대 250억 달러 규모의 달러 표시 회사채 발행에 나섰다는 소식이 알려짐.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은 알파벳이 만기 2년에서 40년으로 구성된 10개 트랜치로 회사채 250억 달러 규모를 발행할 예정이며 이번 채권 발행에는 발행량의 4배가 넘는 1,150억 달러의 주문이 몰렸다고 전함. 알파벳은 올해 연간 자본 지출 규모를 2,050억 달러 수준까지 상향했으며 이어지는 천문학적 투자의 여파로 지난 2분기 잉여현금 흐름이 적자로 돌아서기도 했음. 때문에 회사채 발행을 통한 외부 조달에 나서고 있음. 알파벳은 앞서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채권 시장에서 연이어 회사채를 발행, 500억 달러 이상을 조달했으며 지난 6월에는 85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유상증자를 단행한 바 있음. 회사는 이번 회사채 발행과 관련해 “향후 미국 회사채 발행은 매년 두 차례만 실시할 계획”이라며 채권 공급 과잉에 대한 투자자 우려 달래기에 나서기도 했음.

스토리지 중심 반도체 약세

전일 마감 이후 전분기 실적을 발표한 스토리지 업체 샌디스크(-6.81%)가 다소 실망스러운 매출 가이드언스를 빌미로 급락. BNP파리바와 에버코어 ISI, 씨티 등이 목표가를 하향했지만 대체로 긍정적 방향성에 대한 시각은 유지. 역시 전일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또 다른 스토리지 기업 웨스턴 디지털(-13.04%)은 회계연도 기준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음에도 향후 실적 가이드언스를 다소 보수적으로 제시한 영향에 급락. UBS는 웨스턴 디지털에 대해 경쟁사 시게이트 테크놀로지(+1.83%)에 비해 엔터프라이즈 및 브랜드 출하량이 둔화했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라며 투자 의견 ‘중립’을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기존 560달러에서 525달러로 하향한다고 밝힘.

이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1.31%), 인텔(-1.24%),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4.41%) 등 반도체 밸류체인 내 대부분 종목이 하락. 다만 호실적에도 전일 급락했던 AMD(+1.50%)가 반등했고 브로드컴(+0.55%), 쉘컴(+1.82%)도 상승. 엔비디아(-0.10%) 낙폭도 제한적. 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0.33% 소폭 반등.

이외 특징주

스페이스X(+6.14%)는 이날 첫 번째 보호 예수(락업) 기간이 만료. 초기 투자자들은 전체 발행 주식의 약 7%에 해당하는 9억 1,100만 주를 유동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됨. 이는 IPO 당시 시장에 풀린 6억 3,900만 주보다 많은 물량. 보호예수 물량 해제는 이번 한 번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며 오는 8월 20일 3억 1,900만 주에 대한 락업 해제가 예정돼 있음. 이후 9월에는 약 7억주, 10월에도 7억주 가량의 락업 물량 해제가 추가로 예정돼 있음. 때문에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한 주가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하는 재료가 될 가능성에 시장은 경계감을 갖고 있음. 특히 내부자 매도가 대량 출회될 경우 투자심리에 추가적으로 미치는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이날 주가는 전일 하락을 딛고 반등.

전일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양자 테마 대장주 아이온큐(-0.58%)는 가이던스를 두 개 분기 연속 상향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장 중 고점에서 5% 가까이 상승했던 부분을 반납, 40달러선 회복에 이날도 실패하며 약세 전환해 거래를 마침.

다만 또 다른 양자컴퓨팅 기업 디 웨이브 쿼텀(-9.28%)은 예약 수주가 10배 이상 급증했음에도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 매출과 수익성에 대한 실망을 반영해 급락.

미국 내 저가 화장품 브랜드 엘프 뷰티(+6.88%)는 전일 마감 이후 발표한 실적이 기대 이상이었던 가운데 가세. 인플레이션 장기화로 미국 내 소비자들이 가성비 소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어 엘프 뷰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됨. 여기에 해외 시장 공략 전략도 성과로 이어져 연간 매출과 이익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

모바일 광고 및 앱 기술 기업인 앱 러빈(-19.66%)은 전일 마감 이후 발표한 전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을 하회한 가운데 RBC 캐피털 마케츠와 니드햄, 웰스파고, 파이프샌들러 등이 목표가와 투자 의견을 대폭 하향. 다만 경쟁사 유니티 소프트웨어(+15.05%)는 실적 발표 이후 급등.

클라우드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기업 데이터도그(-19.03%) 역시 이날 발표한 실적은 예상보다 좋았지만 높아진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지 못한 영향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 급락.

렌터카 회사 허츠 글로벌 홀딩스(+29.49%)는 분기 매출과 핵심 이익이 시장 기대를 웃돈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일 사상 최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던 흐름에서 벗어나 급반등.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유가 반등..브렌트유 80달러 상회

국제유가는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해협 완전 재개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틀어지며 급등. 이란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선박에 대한 통행료 부과를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통항을 전면 차단한다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는 최근 며칠간의 기대가 실제 협상 내용과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는 실망감에 뉴욕상품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2.75% 반등, 배럴당 77.29달러에 거래를 마침. 브렌트유 10월물은 5.17%

상승한 배럴당 82.49달러를 기록.

최근 4,000달러선 지지력 확인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 전일 온스당 4,300달러선을 회복한 국제 금가격은 이날 차익 실현 매물과 최근 사흘간 급등했던 부분에 대한 경계감, 그리고 다시 반등한 유가에 대한 경계감 등이 맞물려 소폭 하락.

미국 구리 선물 가격은 최근 공급 제약과 대규모 전력망 투자, 미국 관세 관련 불확실성, 전력화 수요 증가 등의 복합적 요인에 따라 상승세를 지속. 이날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 하락으로 돌아서 마감.

국채금리 전 만기물서 상승

미 국채 금리는 전 만기물에서 상승한 가운데 특히 통화정책 방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기물 오름폭이 컸음. 유가가 나흘만에 반등세로 돌아서 인플레이에 대한 경계 심리로 국채 금리를 끌어올렸고 오전 중 전해진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 역시 국채 금리에 상승 압력을 가함.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2년 만기에서 40년 만기까지 총 10개 트랜치로 25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결정했다는 소식도 국채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

2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6.40bp 상승한 4.2454%를 기록했고, 10년물 국채금리는 6.5bp 상승한 4.6778%를 기록. 30년물 국채 금리는 5.6bp 상승한 5.2242%를 기록.

시카고 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오는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50% 중후반대로 전일 대비 소폭 높임. 10월까지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약 70%로 상승.

달러 가치 급반등..DXY 100 회복 코 앞

미 달러화 가치가 호르무즈 관련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유가 상승,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9월 금리 인상에 의지를 갖고 있다는 보도,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공조 개입 이후 가장 낮아진 엔화 가치 등의 영향으로 반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0.27% 상승해 99.948을 기록.

달러-엔 환율은 완만한 오름세를 보이다(엔화 약세) 오전 중 급격히 오름세를 키우며 미-일 공조 개입 이후 처음으로 158엔을 상향 돌파, 158.43엔까지 상승(엔화 가치 하락).

전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 거래에서 장 중 1,414.50원까지 하락, 10개월만에 최저를 기록한 달러-원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를 1,423.80원에 형성. 최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장 중 10원 이상의 급등락을 반복 중. 이날 뉴욕 차액 결제 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0.55원)를 고려하면 전일 주간 거래 종가 대비 0.75원 하락한 1,422.50원을 기록.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